

# 아틀라스 막아선 노조... 현대차그룹, 현장·생산혁신 제동

〈휴머노이드 로봇〉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본격 양산 노조, 단체협약 AI·로봇 조항 신설 업계, 글로벌 경쟁력 악화 우려



현대차 노사가 지난 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6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었다. /현대차

미국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정밀 작업 능력과 최근 파이어 AI의 로봇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로봇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아틀라스의 본격 양산을 앞두고 노사 갈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직면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카드로 수조 원대 성과급 요구는 물론 로봇·인공지능(AI) 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한 요구안을 내놨다. 현재 미국 공장을 중심으로 아틀라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노조는 현장 투입을 반대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6차 교섭에 나섰지만 성과급과 신규 채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가 내건 요구안은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이다. 조합원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 강화 기여도가 컸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은 10조3648억원으로,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성과급 총액은 약 3조1000억원에 이른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2조5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35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정규직 채용이다. 노조는 매년 발생하는 정년퇴직 자연 감

소를 막고 국내 공장의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정규직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 현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늦추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생산 현장에 아틀라스를 2만5000대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과 양산 체제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렸다. 그러나 노조는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단체협약에 AI·로봇 도입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성과급 확대와 정규직 신규 채용, AI·로봇 도입 반대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이 확

대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발 관세 부담과 중동 갈등, 중국 전기차 업체의 공세로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했다. 지난 4월 내수 판매는 5만4051대로 전년 동월 대비 19.9% 줄었으며 같은 기간 생산 역시 14만4399대로 16.2% 축소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노조가 강조하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은 요구 사항이 될 수 없다"며 "아틀라스 투입은 현재 생산직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노동강도가 강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투입해 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 증가와 강성 노조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환경이 지속될 경우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SK하이닉스, 차세대 HBM 솔루션 공개

HBM 내부에 일체형 냉각요소 적용 고온·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 동작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내부에 냉각 구조를 적용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의 고성능화로 발열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차세대 HBM 대응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26일 HBM 패키지 내부에 일체형 냉각 요소를 적용한 'iHBM(Integrated HBM)' 기술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발열이 집중되는 D2D PHY 영역 내부에 열 제어 구조물인 'ICE(Integrated Cooling Elements)'를 삽입해 패키지 내부에 별도의 열 방출 경로를

만드는 방식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열저항(Thermal Resistance)을 30% 이상 낮추고 고온·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동작 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ICE는 전기는 통하지 않으면서 열전도율이 높은 실리콘 소재 기반 구조물이다. 기존에는 HBM 상단 방열판 등을 중심으로 열을 제어했다면, 이번에는 열이 집중되는 내부 영역 자체에 냉각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기술에 자사 HBM 양산 공정인 어드밴스드 MR-MUF 기반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양산 공정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냉각 구조를 구현해 양산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

이다. 업계는 AI 서버용 GPU와 가속기 성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HBM 발열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추수 증가와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따라 열 제어 기술이 차세대 HBM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는 향후 iHBM 기술을 차세대 HBM 제품에 적용해 AI 메모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강욱 SK하이닉스 PKG 개발 담당 부사장은 "iHBM은 메모리 설계 역량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결합해 개발한 발열 최소화 솔루션"이라며 "AI 시대 고객이 요구하는 열관리 수준과 시스템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지분 추가 매입

104만주 취득... 항공우주 사업 박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항공우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상방산 중심의 사업 구조를 항공방산과 우주 분야로 넓히는 가운데 완제기 체계 역량을 보유한 KAI와의 협력을 강화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AI 주식 104만7635주를 추가 취득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보유 지분율을 기존 5.09%에서 6.17%로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주식 수는 496만4000주에서 601만1635주로 늘었다.

이번 매입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NH투자증권과 체결한 특정금융선택 계약을 통해 KAI 주식을 순차적으로 사들였으며 취득 자금 약 1716억원은 자체 보유 자금으로 마련했다.

한화그룹은 앞서 KAI 지분 보유 목적

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꾼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입해 KAI 지분율을 8%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 지분을 늘린 배경에는 완제기 분야로 항공우주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KAI는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무인기 등 항공기 체계 개발과 생산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업체다.

업계에서는 양측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화의 엔진·전자장비·우주 기술과 KAI의 체계종합 역량이 결합해 항공기와 위성, 발사체를 아우르는 항공우주 사업 구조 구축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정부의 KAI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 논의 가능성을 고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성전자, 유럽 B2B 공조시장 공략 속도

폴란드 4개 도시에 히트펌프 공급



고효율 히트펌프 실외기 'DVM S2'. /삼성전자

유럽 내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친환경 난방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폴란드 비아위스토크를 비롯한 4개 도시에 조성되는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고효율 히트펌프 솔루션을 공급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를 앞세워 유럽 기업간거래(B2B) 공조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에너지 공급업체 '에코파크'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고효율 히트펌프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AI 기능을 강화한 고효율 대형 히트펌프 실외기 'DVM S2'와 히트펌프 실내기 'DVM 하이드로 유닛'을 공급한다.

DVM S2는 '액티브 AI' 기능이 탑재돼 실시간으로 환경을 학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최적의 난방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내기인 DVM 하이드로 유닛은 실외기인 DVM S2와 연결돼, 최대 80°C의 온수와 난방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난방에 사용하는 냉매를 활용해 온수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기반의 보일러 대비 이산화탄소를 발생이 적다. 전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존 보일러 대비 사용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삼성전자 DA 사업부 임성택 부사장은 "삼성전자만의 차별화된 히트펌프 기술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B2B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삼성전자 외부 생성형 AI 도입 추진

삼성전자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삼성 가우스'에 이어 글로벌 빅테크의 외부 생성형 AI까지 사내 업무 환경에 도입한다. 내·외부 AI를 병행 활용해 임직원 업무 효율성과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전자적인 AI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DX(다바이스경험)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6월 중에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최신 생성형 AI를 임직원 업무에 결합해 의사결정 속도와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제품 기획·개발·마케팅 등 전 영역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성형 AI는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기업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 따르면 기업의 AI 활용이 장기적으로 최대 4조4000억달러 규모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차현정 기자

## 현대로템, 유·무인복합 전장기술 고도화

피지컬 AI 기반 국책과제 잇달아 수주

현대로템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핵심 국책 과제 2건을 잇달아 수주하며 지능형 유·무인복합 전장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로템은 산업통상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각각 발주한 '자연어 명령 기반 이종·다중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과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터 및 모듈형 로봇 시스템' 국책 연구개발(R&D) 과제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 과제는 여러 종류의 무인로봇을 언어와 문자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관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무인로봇을 원격 장치로 각각

조종해야 했지만 통합 관제 시스템이 개발되면 최소 운용 인력으로 다수의 무인 플랫폼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현대로템은 이 기술을 주력 무인 플랫폼인 다목적무인차량 HR-세르피와 다족 보행로봇에 적용할 계획이다. 여러 대의 무인차량과 보행로봇을 군집 단위로 운용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방산 현장에 맞춰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달 ADD로부터 다목적무인차량의 가상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과제도 수주했다. 이 과제는 HR-세르피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 시험평가에 활용할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관희 기자